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1)

KWMA 주요 모임에서 소개된 동반자 선교

글, 사진 정용구 선교사

/ 본지 편집위원, KWMA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협동총무

여는말

한국교회 선교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일방향적 ‘보내는 선교’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와 함께 하는 ‘동반자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글에 소개된 여러 행사들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 전환을 확인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었다. 제8차 NCOWE에서는 한국 선교가 현지 교회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이 선포되었다. 이후 교단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는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이 변화를 수용하도록 뜻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선교 140주년 기념 모임과 연설회의는 과거의 선교 유산을 돌아보며, 미래를 위한 전략을 재정립하는 계기였다. 또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과의 만남은 통일 한국 시대에 대비한 협력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남아시아 전략회의와 연구모임은 현장 속에서 동반자 선교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교단장 특별담화문은 한국 선교가 이제 ‘함께 가는 선교’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적 선언이었다. 결국 이 모든 모임은 한국교회가 동반자 선교를 미래의 생존 전략이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각 모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되어진 결의와 내용들을 통해 한국선교가 어떻게 건강한 선교생태계를 만들어 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8차 NCOWE (2023년 6월): 현지인 중심 ‘동반자 선교’ 트랙

2023년 6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II)에서 한국 선교의 방향 전환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10개 트랙 중 하나로 구성된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트랙에서는 일방향적 선교를 벗어나 현지 교회 및 선교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 재설정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이 트랙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 소속 홍경환 목사(예장통합 세계선교부 총무)를 비롯한 여러 현장 선교사들이 참여해, 독자적·일방적 선교에서 벗어나 현지 교회와 동역하는 동반자 선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철호 선교사(제8차 NCOWE 프로그램위원장)는 “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가 외부인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는 내부인(현지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제 선교는 서구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벗어나 다중심적(polycentric)이고 쌍방향적이며 전방향(all-direction)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부자는 돋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을 제언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한국교회 선교계에서는 “보내는 선교” 중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고(Rethink)해야 한다는 결단이 모아졌다. 그런 가운데 모여진 키워드인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면서 동반자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도 이때 제시되었다. 동반자 선교의 핵심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었다: ① 선교사는 파송 받은 외부인으로서 해당 국



가의 주민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② 선교사는 현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할 것 ③ 각 나라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임을 자각할 것 ④ 선교사는 일시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현지 교회를 돋는 파트너(조력자)에 불과함을 명심할 것 ⑤ 현지 교회의 자립을 끝까지 격려할 것 ⑥ 선교 사역은 현지 교단의 요청과 필요에 기반하여 수행할 것 등이다. 이러한 원칙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을 일방적 공급자(giver)가 아니라 현지 교회와 함께 배우고 섬기는 동역자(co-learner, co-worker)로 자리매김하도록 요구한다.

물론 동반자 선교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현지 교단과의 협력 속에서 선교사의 활동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자 선교의 전략적 장점은 분명했다. 현지 교단과 협력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① 현지 교단의 법적 보호와 현지인 동역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비교적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선교를 전개할 수 있다.
 - ③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확대된다.
 - ④ 국내 다문화 배경 사역과 연계되는 파급 효과가 크다.
 - ⑤ 선교 자산의 사유화를 방지한다.
 - ⑥ 사역 이양 시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⑦ 현지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선교지를 현지 교회에 온전히 이양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 아래, KWMA는 제8차 NCOWE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모임을 통해 '동반자 선교' 정신을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 스며들게 하는 노력을 이어가게 된다.

2. 2024년 교단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 (10월 24~25일)

제8차 NCOWE 이후 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1년여 후인 2024년 10월, KWMA는 교단 선교 책임자들과의 소통에 박차를 가했다. "2024년 교단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 3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간담회에는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감(기독교대한감리회), 기성(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하성 등 14개 교단의 선교 국장 및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급변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 한국 선교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KWMA는 교단 간 리더십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선교의 미래 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원했다.



첫날 전체회의에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KWMA 부법인이사장)는 “최근 영국조차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나라가 된 현실을 교훈 삼아, 한국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선교 지형 변화와 로잔대회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재훈 목사는 특히 “오늘 모인 각 교단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선교를 위해 소통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며, KWMA가 이러한 교단 소통을 섬기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는 “서구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모든 대륙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세계기독교 시대(World Christianity)에 걸맞게 선교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선교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발제하며, 비서구 교회가 부상한 다중심적 선교 시대에 한국교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를 간의 논의 끝에 KWMA와 교단 선교 지도자들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2025년 3월에 교단 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계획함으로써, 이후 다가올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 모임과 ‘뉴 타깃(NEW TARGET) 2030’ 전략 수립에 교단의 동참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한국 복음전래 140주년 기념 교단 총회장 간담회 (2025년 3월 13일)

2025년은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선교사가 한반도에 복음을 전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KWMA는 2025년 3월 13일 주요 교단 총회장들을 초청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예장 통합·합동·고신, 기감, 기침(기독교한국침례회) 등 11개 교단의 총회장과 총무들이 참석하여 한국 선교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고, KWMA는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온 “NEW TARGET 2030” 선교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교회 선교 140년의 유산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KWMA 황덕영 운영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선교의 축이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통일과 다음세대, 이주민 선교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간신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어렵다”며, 한국교회가 기존 방식을 넘어서 선교적 패러다임을 재정비해야 함을 역설했다.

KWMA는 “KWMA가 회원 단체들과 4년간 논의를 거쳐 2030년까지 추진할 선교 전략을 수립했다”며, 그 핵심과제로 ①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 ② 국내 이주민 선교 ③ 다음세대 선교 동원, ④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선교의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NEW TARGET 2030” 전략은 바로 동반자 선교를 통한 글로벌 선교 네



트워크 형성, 국내 Diaspora 250만 이주민을 선교 자원화하는 전략, 탈기독교 시대 청년층을 선교 주역으로 세우는 동원 전략, 그리고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닫힌 지역에도 복음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단 총회장들도 한목소리로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예장합동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기보다 겸손히 협력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함을 언급하며, “이제 한국교회도 ‘보내는 자’가 아닌 ‘함께 가는 자’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김과 겸손에 기반한 동반자 선교만이 앞으로의 선교 문을 열 열쇠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이주민과 다음세대 선교, 비서구 교회와의 협력, AI 선교 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는 선언이 나왔다. 이날 모임은 교단과 선교단체의 벽을 넘어 한국 선교 생태계를 재구성하려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KWMA 주승중 법인이사장과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 선교의 성숙기 진입과 교세 감소 현실을 직시하며 과거의 물량주의적 선교를 넘어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에서 “한국 선교가 지난 수십 년간 ‘보내는 선교’ 중심의 급성장기를 지나 이제 성숙기 혹은 재조정기에 들어섰고, 교인 감소로 인해 예전과 같은 물량주의 선교를 지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방적 선교가 선교지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진단”을 내놓았으며, 지금이야말로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KWMA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NEW TARGET 2030’ 전략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하고, 특히 교단장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건강한 선교 생태계를 구축해갈 것을 다짐했다.

4. 한교총 상임회장단 간담회 (2025년 7월 9일): 교계 연합과 통일 대비 전략

2025년 7월 9일, KWMA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교단 연합 차원의 선교 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한교총 상임회장단 간담회”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 총회장)를 비롯한 주요 교단 연합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KWMA 강대홍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이 내빈을 소개한 후 KWMA 주승중 이사장과 김종혁 대표회장이 각각 인사말을 전했다. 이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다가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선교 전략, 특히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원칙” 제안이었다. KWMA



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선교계가 미리 준비해야 할 원칙들을 정책 제안 형태로 발표했다. 이어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과 한국교회 통일선교교단협의회 회장 김찬곤 목사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가 분단 이후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세울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통일 선교는 더 이상 일부 선교단체의 몫이 아니며, 교단들이 함께 원칙을 세우고 준비해야 할 사명”이라고 언급하며 교단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논의된 북한교회 재건 7원칙은 곧바로 KWMA의 선교 정책 어젠다로 채택되어 이후 이어질 정책회의에 반영됐다. 이처럼 KWMA는 한교총 등 연합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국내 교계 전체가 선교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략에 동참하도록 이끌고자 했다. 간담회 후 김종혁 대표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선교에 힘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KWMA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5. 한국 선교 전략 연설회의 (2025년 7월 21~23일)

：KWMA 운영이사회·정책위원 & 한교선 정책회의

2025년 7월 하순, KWMA는 앞선 간담회들의 논의를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설회의를 개최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 선교 생태계 변화를 위한 KWMA 운영이사·정책위원 및 한국교단선교실무대표자회(한교선) 연설회의”에는 KWMA 운영이사와 정책위원, 그리고 주요 교단 선교 실무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New Target 2030: 한국 선교의 전략적 미래”를 주제로, 급변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2030년까지 한국교회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설회의에서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날(7월 21일 오후~22일 오전)에는 교단 선교 실무대표자들이 모인 ‘한교선 정책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2030년 선교의 흐름과 과제: 동반자 선교, 선교지 이단 대책, 북한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향후 한국 선교계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교회도 동반자 선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며, 현지 교회와의 겸손한 협력과 이단 대응의 긴박성, 그리고 통일 대비 북한선교 준비를 강조했다.

이어서 NEW TARGET 2030 4대 중점 과제 – ① 비서구와 같이 가는 선교(노성천 협동총무) ② 국내 이주민



선교(정용구 협동총무) ③ 다음세대 선교 동원(이강욱 협동총무) ④ AI·디지털 선교(정용구 협동총무)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발표 후 참가자들은 교단별 분과 토의를 통해 각 교단 선교부의 동반자 선교 모델과 전략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장에서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어떻게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담이 오갔고, 새로운 협력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날(7월 22일 오후~23일 오전)에는 KWMA 운영이사와 정책위원들이 합류한 ‘정책회의’가 진행되었다. KWMA 정책위원으로 참여한 한철호 선교사, 송재홍 목사, 손승호 선교사가 미전도종족(UPG) 전략, 비개척지역(UUPG) 개척, 한국선교의 영성 회복 등을 주제로 특별 발표를 했고,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겸손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반자 선교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반자적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황덕영 KWMA 운영이사장은 KWMA의 향후 비전을 나누면서, KWMA 선교 아카이브 구축, NCOWE 자료의 전자화(ebook) 등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 선교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용구 KWMA 협동총무는 제8차 NCOWE부터 NEW TARGET 2030이 선포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983쪽 분량의 책과 다큐 제작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이번 책자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일선의 선교사들과 현지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언어팩(249개 언어)의 기능을 소개하고, 한국의 교회 및 신학교, 다음세대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소개를 하였다. 실제로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 선교 생태계의 변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동반자 선교로의 전환에 대해 공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 연석회의에서 논의·정리된 주요 과제들은 곧이어 발표될 교단장 특별담화문의 뼈대로 이어졌다.

(다음 호에 계속...)

〈NewTarget 2030 기획특집〉

1. 왜, New Target 2030인가_정용구
2. 글로벌 사우스_노성천
3.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이주민과 함께 열어가는 희망의 문_문창선
4. 미래세대 선교_박성민
5. 디지털 선교 로드맵_정용구
6. 한국 교회와 건강한 선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안_강대홍